

광활한 대륙의 역사 속으로...

바람직한 동북아 미래상을 만들 어갈 주역인 대학생 불자들이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고구려 유적 지가 산재한 중국 동북지역을 탐방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조용석, 이하 대불련)가 주최하는 'COREA의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행사에는 증명법사로 동행하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을 비롯 대학생 5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련 단동 집안 서파 백두산 통화 환인 심양지역 답사를 통해 대불련은 광활한 대륙의 역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 역사를 체험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행 지역은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산 백암성

대학생 불자 50여명 中동북지역 기행 25일부터 6일간 '고구려 역사' 탐방

△백두산 천지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경계비 △광개토대왕비 및 태황릉 △환도산성 △장군총 △국내성 △졸본성 △비류수 △장군분 △고구려 천리장성 △암록강 △여순감옥 △비사성 등이다.

특히 답사기간에는 동국대 윤명철 교수가 '고구려 역사알기' 등 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제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등을 주제로 2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고, 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불련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아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했다.

등에서 주변국가와 대등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상기해 21세기 우리나라의 모델로 방향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불련 조용석 회장은 "우리 옛 선인들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불교,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대학생 불자들이 우리의 옛 영토인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해 고구려 역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역사 전체를 바로 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며 "대불련 학생들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닌 시대의 새 주인으로 당당히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 정무 스님은 "스스로 업신여기면 종파에 되지 않는다"며 "세계와 나눌 것이 있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윤명철 교수는 "고구려는 주변문화를 흡수하고 융화시켜 지중해 문화를 통해 동아시아 중핵 국가가 됐다"며 "고구려가 국가간 조정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나 문화 경제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법회

서울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은평구청과 공동으로 6월 7일 진관사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이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충담 스님 열반 9주년 추모 법회

18일 청평 감로사서 개최

'나를 사후에 소신공양을 올린다면 이 나라 분단된 국토가 통일되어 동족상잔의 비극과 굶주리고 병들어 고통 받는 이들이 없게되고 불교계가 화합되어 흥할 것이다.'

1998년 6월 27일 제 7차 대원력을 담은 열반계를 남긴 뒤 주석처였던 서울 승가사(주지 지성)는 6월 18일 오후 1시 청평 감로사에서 충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불교계의 내분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란이 컸던 시기에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은 한국불교 역사상 드문 일여서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서울 승가사(주지 지성)는 6월 18일 오후 1시 청평 감로사에서 충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한다.

지성 스님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 극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모법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31) 584-0117 김원우 기자

제주 '관음사 사태' 해결 조계종 총무원 팔 걸었다

제주 관음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계종 총무원측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총무원 부장 현문 스님은 6월 4일 제주도를 방문해 현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문 스님은 "제주불자연합회는 시종 스님이 백암사에서 출가한 것을 이유로 백암사 스님이 제주불교 자치권을 침해하고 파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종 스님은 30년 전에 법사에서 주석하면서 법회사의 중창을 통한 제주불교의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온 분"이라고 말했다.

이제 제주불자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음사 승가정체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호 스님 문중을 중심으로 재재성을 정비했다"며 "진명 스님은 지호 스님 문중의 일원으로 관음사 승가정체성 확립에 봉사하기 위해 주지후보자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오른쪽)이 선승·무공·승행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하고 있다.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전강식 선승·무공·승행 스님에게 강맥 전수

하동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 전강식이 6월 8일 평창 월정사 적광전에서 봉행했다. 탄허 대종사에게 강맥을 전수받은 통광 스님은 탄허 대종사 탄신제일을 맞아 선승, 무공, 승행 스님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통광 스님은 1959년 사미계, 63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법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10년간을 성만했다. 스님은 77년 오대산에서 당시 대강백이었던 탄허 스님께 전강을 받아 경허→한암→탄허의 강맥을 이었다.

1991년 사미계, 94년 비구계를 수

"해외의료봉사기금 마련"

경희의료봉사회, 음악회 개최

경희의료봉사회(회장 권혁은)는 6월 14일 오후 6시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해외의료봉사 기금마련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경희의료봉사회는 오는 12월 인도 뭍바이 인근의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지에서 1주일간 의료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권혁은 회장은 "수년간의 의료봉사 경험을 토대로 이번엔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불자가수들과 연화사 국악팀의 공연 등으로 꾸러질 음악회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자기수회, 불교TV의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음악회의 기금은 의료봉사에 쓰일 약품 구입비로 사용된다. 1999년 창립한 경희의료봉사회는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매월 서울 연화사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02)958-9616

여수령 기자



충담 스님 열반 9주년 추모 법회

종교적 관점 남녀평등 학습포럼

남·여 평등과 호주제도를 각 종교 경전에서 입각해 사회정치적 진작 방안 등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회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18층 강당을에서 '소속 경전에서 본 남·여 평등 호주제도와 남·여 평등'이란 주제로 학습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학습포럼은 연정열 한국명예교수회장의 사회로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8개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참여한다. 불교계에서는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이 축사하며,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장주 스님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무비 스님 '書狀 대강좌' 개최

조계종중앙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6월 20일부터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서장(書狀) 대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매일 1회씩 10회에 걸쳐 열리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대해 선사 선 수행 편지 모음집인 <서장>은 간화선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불서"라며 "법어사승가대학 강사인 무비 스님의 강의를 통해 <서장>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 20만원. (02)735-2428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대불련 고구려 역사유적 탐방단 대불련 발도장짜다!!! COREA의 고구려를 찾아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중국동북지역 답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편협한 민족주의를 앞두고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반도의 역사가 아닌 광활한 대륙의 역사,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던 고구려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과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고히 하고 무한한 자신감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옛 선인들의 사상과 문화의 흐름을 지탱하고 있는 불교, 그 가르침을 이어가는 대학생 불자들은 우리의 옛 영토인 중국 동북지역 답사를 통하여 동북공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주제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일시 : 2007년 6월 25일(월)부터 - 30일(토) (5박 6일)
장소 : 중국 동북지역(대련-단동-집안-서파-백두산-통화-환인-심양-대련)
대상 : 전국 대학생 약 50명



언제 어디서나 주인되는 무한능력발전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http://town.cyworld.com/yes)

◆ 고구려 역사유적탐방단 일정 ◆

6월 25일(월)	요동반도의 끝을 밟다!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대련도착 고구려의 가장 아름다운 성 백암성! 심양 백암산/ 통화로 이동 유적답사단 오리엔테이션
6월 26일(화)	백두산 천지에 오르다!	서파 / 고산 화원대, 금강대협곡, 5호 경계비, 천지 / 통화로 이동
6월 27일(수)	424년간 고구려의 수도 집안!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집안박물관, 광개토대왕비, 광개토태황릉, 환도산성, 장군총, 오호도, 중조천교, 국내성 등 고구려 건국의 요람 환인! 졸본성, 오녀산성, 비류수, 장군분, 고군분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강의1 -고구려 역사 바로알기
6월 28일(목)	암록강을 따라서	주몽이 유목민과 정착한 본계 그리고...고구려의 천리장성 호산장성, 환인 / 단동 / 대련, 본계 본계수동굴, 천리장성 호산장성 암록강을 따라서(신의주, 위화도, 월광도) 강의 2-동북공정 바로알기
6월 29일(금)	대련에서의 마지막 밤	여순감옥, 자연사 박물관, 비사성 답사를 마치며(명가의 강)
6월 30일(토)	요동반도를 떠나며	대련출발 / 인천도착

◆ 후원 안내 ◆

이 시대,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글로벌시대, 당당한 리더로서, 가슴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냉철한 머리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 우리의 현 위치를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무한능력을 펼치기 위해 떠나는 저희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대학생불자가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거름이 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006001-04-140228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